



삼

엇박자에 신명 나는 춤 브라질 노예노동 애환 깃들여

빠르고 열정적인 삼바(Samba)의 율동은 생동감이 넘친다. 삼바 리듬의 엇박자에 맞춰 춤에 몰입하다 보면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카타르시스에 빠진다.

글 채삼석 · 사진 한국프로댄스평의회 제공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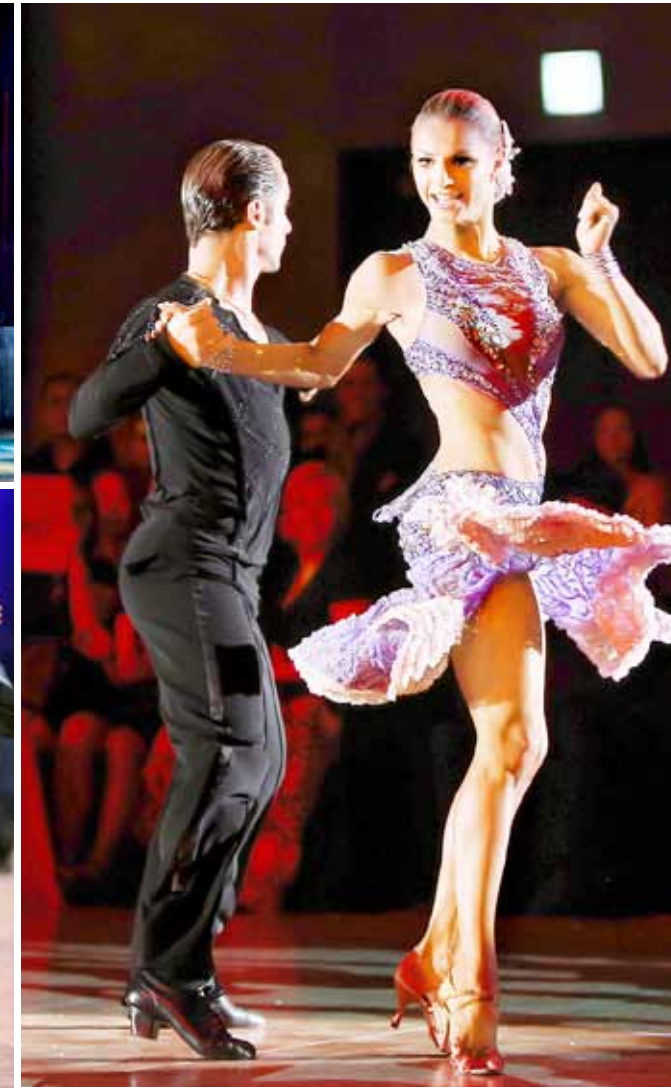
“ 짹 짹, 짜~악 짜, 대~~한 민~국”. 국가 대항 스포츠 시합이 열리는 경기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다 함께 손뼉 치며 외치는 응원가도 엇박자다. 삼바의 엇박자와 연결되는 맥락이다. 삼바 리듬이 2002년 월드컵축구 응원전에서 크게 바람을 타기 시작한 국민 정서와 일맥상통한다는 얘기다.

리우 카니발의 삼바 댄스는 초대형 단체 춤 퍼레이드 행사다. 댄스스포츠 삼바는 경기용 커플 댄스로 성격이 다소 다르다. 그러나 배꼽이 윙크하듯 허리와 복부를 흔드는 기본 동작은 같다. 느낌도 비슷하다. 박준홍 교사는 “댄스스포츠 삼바를 국내에서 배우고 나서 리우 카니발의 삼바 축제를 즐기러 가서는 그저 구경만 잘 하고 왔다는 여행객도 종종 있다”고 말한다. 리우 카니발의 삼바 춤과 댄스스포츠 삼바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의미다. 실제 춤추는 장면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알게 된다.

삼바 춤의 스텝 중에는 족쇄에 쇠사슬을 끌면서 이동하는 듯한 발동작도 있다. 기초 단계부터 걸음마로 배우는 삼바 워크다. 곧바로 쉽게 전진하지 못하고 ‘첼커덕’, ‘미끄덩’ 하는 모습이다. 일단 앞으로 나아가다 뒤로 조금씩 밀리면서 다시 전진하는 ‘슬립’ 액션이 특징이다.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브라질 농장으로 끌려온 노예 노동자들의 역사가 있다. 이들의 애환이 삼바 춤에 녹아들었다. 복장단에 맞춰 힘겨운 노동의 스트레스를 풀면서 희망과 자유를 갈구하던 춤이라고 한다. 한편으론 신명 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슬픈 삼바 댄스와 노래의 배경 스토리다.

삼바 음악은 4분의 2박자로 특히 리듬이 중요하다. 1분에 보통 48~56소절을 연주하고 이에 맞춰 춤추는 템포다. 두 번째 박자에 강세가 있다. 빠르고 열정적인 삼바는 커플 댄스로서 1930년대부터 유행했다. 허리와 어깨를 많이 쓴다. 생동감이 넘치는 춤이다. 원-아-투-아 쓰라-아-포, 또는 슬로 퀵 퀵, 퀵 퀵 슬로……. 이처럼 리듬이 자주 바뀐다. 삼바 워크와 크리스 크로스 볼타, 삼바 록은 리듬이 같다. 코르타 자카, 내추럴 롤, 볼타 턴, 플레이트 등은 리듬이 서로 다르다. 다양한 리듬의 변주가 삼바의 특징적인 색깔이다. 음악에 맞춰 삼바 댄스에 몰입하면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환상에 빠진다는 마니아도 있다. 엇박자의 다양한 리듬에 곡사포탄의 작은 포물선 같은 바운스 동작 등이 함께 어울려 공명하는 심신의 작용 때 문일 것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의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화·목요일 저녁에 두 시간씩 댄스스포츠 교실을 운영한다. 삼바와 자이브, 룸바, 파소 도블레 등 라틴 댄스 5종목과 탱고, 왈츠, 폭스트롯, 빈 왈츠, 퀵스텝 등 스탠더드 5종목 가운데 통상 2종목을 반복 교습하고 서너 종목을 복습한다. 단지 특정 댄스 종목을 배우고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악식 파티를 즐기는 느낌이다. 술이나 음식이 없는 드라이 댄스

파티의 연습 현장으로 생각해도 될 것이다. 일반인들도 접근하기에 다소 편리하고 실용적인 진행 방식이다. 수강료도 저렴한 편이다. 3층 대체육장을 댄스 교실로 활용하고 있다. 마룻바닥은 무릎과 발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미려한 원목으로 시공해 탄력성이 있다. 농구 시합을 할 만큼 여유 있고 밝은 공간도 장점이다. 댄스스포츠를 즐기면 곧바르고 멋진 몸매와 스타일을 가꾸는 데 유리하다. 댄스는 또 세계 어느 곳에서나 통할 수 있는 공용어로 통한다고 한다. 2시간 가까이 춤을 추면 1만2천 보를 걷는 효과가 있다. 심신의 스트레스 해소와 다이어트, 미용과 건강에 효과적이다. 국민 생활체육으로 권장해 주민자치회관과 문화스포츠센터 등지에서도 교습생과 동호인이 증가하는 이유다. 그런데 댄스스포츠에 대한 일부 당국자의 인식은 아직도 국민 수준에 다소 미달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기가 높아지지만 가끔 갈등이 불거진다. 경기도 광명시 교육지원청은 작년 11월 댄스스포츠 전문 강사인 강신웅 원장이 낸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위법성, 부당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 3월말 행정심판 심리를 통해 학원 등록 신청 반려는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결국 등록 반려 처분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아냈다. 현행 체육시설 설치 이용, 학원 설립 운영과 과외 교습, 평생교육 등 관련 법령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댄스스포츠 학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참고할 만한 판례가 나와 있다.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댄스스포츠) 강사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학원 설립 운영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선고한 바 있다. ▼



SAMBA